# 『讀書新聞』 고찰*

## -국어교육적 측면에서-

윤금선**

## Ⅰ. 머리말

본고에서는 국어교육적 측면에서 ≪讀書新聞≫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 신문은 1970년도에 발간된 학술·문화·예술·출판 정보 전문의 주간 신문이다. 양서 소개와 독서 지도를 전문적으로 전달할 매체의 필요성을 절감한 출판계의 공동 지원을 통하여 창간되었다. 독서 인구의 개발, 독서 광고의 일원화, 해외 시장 개척 및 저작 활동 관련 문제 등에 중점을 두고 기사를 게재하고 있으며 국민 독서 지도 활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신문명에서도 드러나지만 이 신문은 특별히 읽기교육과 상관된 자료이며, 본고에서도 '독서교육'에 중점을 두면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신

* 이 연구는 한국학술진흥재단 2004년도 기초학문육성지원 인문사회분야 지원사업 중점연구분야 한국근현대연구 '근현대 민족어문교육 기초연구(Ⅱ)'에 의하여 이루어졌음(KRF-2004-073-AM2033). 이 논문 발표의 토론을 맡아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서울교대 원진숙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문의 전체적인 기사를 토대로 하여 첫 번째로 ≪讀書新聞≫의 국어교육적 가치가 무엇인지 살펴 보겠다. 두 번째로 '무엇을 읽을 것인가'라는 독서 대상의 문제를 고찰할 것이며, 세 번째로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독서 방법에 대해 살피고, 마지막으로는 기사를 통해 드러난 70년대 초의 독서 현황과 독서 운동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1)]

## Ⅱ. ≪讀書新聞≫의 국어교육적 측면

### 1) ≪讀書新聞≫의 국어교육적 가치

#### (1) ≪讀書新聞≫ 창간 목적

≪讀書新聞≫은 같은 신문명으로 2종류의 판이 있는데, 하나는 일제강점기에 발간된 것으로서 ≪朝鮮出版新聞≫을 개제(改題), 지령(紙齡)을 계승하여, 1948년 11월 11일 제12호를 1호로 하여 출발하였다. 타블로이드판으로서 4면으로 발행되었는데, 매월 1일, 11일, 21일에 발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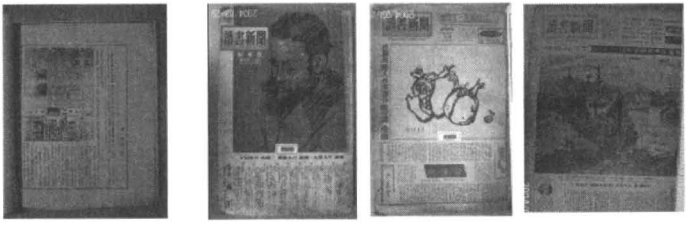


그림 1 ≪讀書新聞≫

1) 대상 자료는 ≪讀書新聞≫(1970年 11月 6日~1971年 1月 17日, 讀書新聞社, 1971)로 창간호로부터 10호까지이다. 신문사에서 특별히 제본판으로 발간한 영인본이다.

1948년도판 ≪讀書新聞≫ 창간호에는 "改題發刊에 際하여"라는 제목 하에 그 발간 취지가 실려 있다.

> 解放 祖國의 出版文化暢達을 위하여 언간 一年餘 <朝鮮出版新聞>의 題號로 披瀝하게나마 發行하여온 本紙는 이제 우리나라 中央政府의 樹立을 기회로 그 성격과 내용을 充實 增補하여 이땅 讀書君子들의 伴侶를 目標로 讀書新聞이라 改題發行하게 되었다. 무릇 '讀書'에는 그 內容과 方式에 있어서 여러가지 種類와 目的과 形態가 있어 一律的으로 이것을 論之하기는 어려우나 '글'(책)을 相對하는 根本原理에 있어서 一致共通하매 항시 글벗 길동무가 必要하게 되어 때로는 案內者가 緊要하며 스승을 찾게 되는 것이다. '讀書'가 아직도 一部 學者나 知識層의 專賣品이며 그렇지 않으면 一部 有閑層이나 論客들의 消日物로 아는 程度의 낮은 認識으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讀書新聞의 發刊은 確實히 冒險이 아니면 先學적임이 아닐 수 없다.[2]

"國民讀書運動의 振興"의 기치를 든 ≪讀書新聞≫은 출판계 소식, 문학, 서평, 신간 소개, 문예 등으로 편집되었다. 그러나 12호로 정간되었다.[3]

그런데 현대에 이르러 1970년 11월 8일 새로이 발간되었는데, 학술·문화·예술·출판 정보 전문의 주간 신문(총 24면)으로서 매주 일요일에 발간되었다.[4] 70년대판 ≪讀書新聞≫[5]은 양서 소개와 독서 지도를 보다 신

---

2) <改題發刊에 際하여> ≪讀書新聞≫(1948. 11. 11)

3) 『韓國新聞百科 史料集』, 韓國新聞硏究所 편, 1967.

4) 사장은 최성원, 편집 겸 발행인 양미림, 인쇄인 김용해, 편집국장 정태영이고, 구독료는 1부 35원, 월정 100원. 광고료는 1행 50원. 발행소는 서울시 중구 을지로 3가 40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신문은 48년도 판의 재발간이 아니라 신문명만 같고 그 발행처는 다르다(한국신문연구소 편, 1975).

5) 이 신문은 1970년 김익달(金益達)을 초대사장으로 해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2번지에서 창간되었다. 타블로이드판형으로 4색 인쇄되었고, 30면 내외로 발행되었다. 1970년 11월 창간호로 시작하여 1980년 8월 491호까지 발행되다가 정간되었고, 1982

속히 전문적으로 전달할 매체의 필요성을 절감한 출판계의 공동 지원을 통하여 나오게 되었다.[6] 1948년도의 ≪讀書新聞≫이 출판사와 관련된 신문이었다는 점에서 70년도 판이 재발간이 아닌 창간호임에도 불구하고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讀書新聞≫이 창간될 즈음 ≪中央日報≫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자세히 실려 있다.

> 특수 주간지 독서신문이 11월 3일 학생의 날을 기해 창간된다. 「타블로이드」판 24면의 이 주간지는 교양인·대학생 독자를 상대로 하여 새로운 독서운동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의 중요 47개 출판사 사장을 주주로 하여 발행할 도서신문은 총 자본금 1천 5백만원, 발행부수 10만부 예정이다. 양서가 제대로 출판되지 못하는 우리현실에서 독서불모·독서공해를 제거하자는 것이 목표이다. 가장 주력하고 파고 들어가야 할 구매층은 지식인, 특히 교원과 대학생 및 회사원으로 보고있다.[7]

이어지는 기사 내용에 따르면, 이 신문은 예술 분야에 40%의 지면을 할애하고 그 외는 주로 신간평과 문화 일반이 취급되었다. 특히 서평의 경우 공정을 기하기 위해 '서평특별위원회'를 학자·교원·언론인 등으로 구성했다. 그래서 이 신문의 특징은 권위있는 서평에 있으며, 결과적으로 기사는 외부 원고가 7, 8할을 차지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1968년에 출판업이 사양화하자 몇몇 뜻있는 출판인들이 독서 계몽을 위한 신문의 필요성을 느낀 데서 이 ≪讀書新聞≫은 태동한 셈이다. 그 뒤 문공부에서 독서인구 개발을 위해 '출판개발위원회' 구성을 서두르고 여기에 '출협'이 주동이 되어 독립된 신문사로 발족, 창간 단계에 이른 것

---

년 3월 567호로 재창간하였다. 후속저록으로는 ≪주간독서≫가 있는데, 492호(1980년 9월)에서 566호(1982년 3월)까지 발행되었다.

6) 뜻있는 출판인들에 의해 출판, <國民의 친절한 啓導者>, 편집의 경험담 [編輯長 시절] <文章誌> 趙豊衍(1970. 11. 8), <新東亞>崔乘萬(1970. 11. 22)

7) <독서불모지대의 새 기수로 「독서신문」 탄생>(1970. 10. 28) ≪中央日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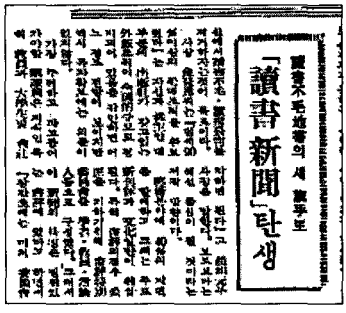

讀書不毛地帶의 새 旗手로
「讀書新聞」탄생

그림 2 ≪독서불모지대의 새 기수로 「독서신문」 탄생≫
≪中央日報≫(1970. 10. 28)

이다.

≪讀書新聞≫는 독서 인구의 개발, 독서 광고의 일원화, 해외 시장 개척 및 저작 활동 관련 문제를 내세웠고, 1986년부터는 전국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후감 현상 모집을 하였으며, 1987년 1월에는 '독서문화센터'를 창설해 국민 독서 지도 활동을 전개하기도 했다(졸고, 2004: 471).

창간호에 실린<本社 5大社業>(1970년 11월 8일)에서는 동지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숨은 '독서운동자'(讀書運動者)들을 뽑아 공로상을 주기로 한다. ② 바람직한 '제2경제'의 논문상을 제정해서 정신적 풍토를 재확립하는 가치관을 찾아본다. ③ 소비성향적인 출판 공해를 없애기 위해 악서(惡書) 추방 캠페인을 전개한다. ④ 출판문화 전시회관을 건립하여 문화향상의 현장적 소개와 안내 보존을 꾀한다. ⑤ 국제도서 전시회를 열어 도서문화의 교류 및 도서문화의 국민적 시야를 넓히는 데 힘쓴다.[8]

이 사업은 독서신문사와 '대한출판협회'(大韓出版協會)와 '한국잡지협회'(韓國雜誌協會)와 공동 주관으로 계획된 것이었다.

<讀書는 開發의 原動力 文化앙양의 旗手 자처>라는 제목의 창간사에도 "1. 知識의 大衆化, 2. 消費性向的 매스컴에 抵抗, 3. 第二經濟는 책에서, 4. 人間精神의 恢復을" 등의 부제를 달고 신문사의 방향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

8) <本社 5大社業>(1970. 11. 8)

讀書新聞은 앞으로 독자여러분의 참다운 여론을 바탕해 가면서 文化風土의 改善, 讀書의 生活化, 知識의 大衆化, 著作活動의 鼓舞등을 꾀하려고 합니다. 이런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출판정보와 良書의 상담구실을 말을 매스 미디어가 절실히 요청되는 것입니다. 현대를 전자미디어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파의 소용돌이 속에서 活字를 어떻게 지키며 활력있게 번져 나갈 수 있게 하느냐는 것은 잠시도 지체할 수 없는 당면문제인 것입니다.

《讀書新聞》 창간호 기사 《讀書新聞》의 의의를 논하는 기사

그림 3 ≪讀書新聞≫ 창간호 기사 12

이 글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讀書新聞≫은 신문사의 방향성을 문화풍토의 개선(文化風土의 改善), 독서의 생활화(讀書의 生活化), 지식의 대중화(知識의 大衆化), 저작활동의 고취(著作活動의 鼓舞) 등으로 내세웠다. 뿐만 아니라 출판 정보와 양서(良書)의 상담구실을 자처하기도 했다.

◇讀書相談室설치 독서신문은 독자들의 책을 중심한 여러 가지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책과 관계되는 모든 일을 도와드리기 위해 <讀書常談室>을 만들었읍니다. 독서지도, 책의선택, 책의구입방법, 제작상의 의문 등등을 받아들여 그 해답을 전문가에게 얻어드릴 예정으로 독자들의 많은 참여있기를 바라고 있읍니다. ◇新刊書·雜誌評 讀書新聞은 다음 號부터 그달의 雜紙評欄 을 신설하기로했읍니다. 기대 있으시기 바랍니다.[9]

실제로 '讀書相談室'란은 1970년 11월 29일자 제4호부터 게재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問> 漁業협동조합에서 일하는 17세의 소년입니다. 水産에 대한 체계적인 지시을 쌓고 싶은데, 그방면의 좋은책들을 소개해주십시요. <忠南보령군 대천읍어항 김기태> <答> 수산고등학교과서 가운데서 「水産通論」을 읽어 보신 후, 「水産學總論」(釜山水産大學篇)을 精讀하시면 수산에 관한 총괄적인것을 아실수가 있읍니다. 헤밍웨이 著 「바다와 老人」도 도움이 되실것입니다.(水産業원양개발과 河星煥)[10]

인용문은 전문적인 분야의 책 안내에 대해서 답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책의 제목을 대며 출처를 물을 경우 그 출판사명을 알려주기도 했다.[11] 실제 게재된 기사는 단문단답의 간단한 것들임을 알 수 있다.

신간평, 잡지평 등은 매호 게재되고 있으며, 제8호(1970년 12월 27일)부터는 <讀書情報>란을 통해 양서 소개를 보다 구체적으로 하고 있고, 제9호(1971년 1월 3일)부터는 <解題的 書評>란을 마련, 고전 한권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가치매김을 해 주기도 했다.

특히 이 신문은 창간사에서도 밝히 바, 전파 미디어의 발달에 다른 활자 미디어의 위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으며, 활자 매체를 활성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한 예로 <電波미디어와 活字미디어>(1970년 11월 15일)의 내용을 보면, 먼저 인류 역사에서 발생된 인간 상호간의 의사전달이 처음에는 언어를, 그리고 다음에는 문자로서 이루어졌다고 지적한다. 이를 보면 인간상호간의 의사전달에는 말이 그대로 전달되는 전파가 우선한다고 보았다.

---

9) <編輯者의편지>(1970. 11. 8)
10) <讀書相談室>(1970. 11. 29)
11) <讀書相談室>(1970. 12. 20)

그러나 인간의 지식이란 의사전달로만 충족될 수 없기 때문에 문자의 발명과 기록 전승의 수단을 강구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서 전파 미디어란 원시적인 욕구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고, 활자는 일단의 진보된 의사전달 방법이라고 보았다.

그러면서 필자는 활자 미디어와 전파 미디어를 비교해 가며, 활자 미디어의 장점을 드러내고 있다.

> 사람은 누구나 잠을 깨면 활자를 보거나 전파를 통한 소리를 듣거나 할 수 있다. 그러나 활자는 필요한 것을 선택해서 볼 수 있는데, 전파는 公衆 앞에서의 선택의 기회조차 주지않고 일방적으로 우리들의 귀를 두드린다. 확실히 현대는 전파의 시대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 이것은 현대의 특징으로 편리하게 행복을 추구하려는 방법의 하나로서 독서의 괴로움을 덜기 위해서 전파로 책을 대신하려는 것인데, (....) 그러나 책의 定義가 달라진다면 모르거니와, 현대적인 의미로서의 책이 ①인간의 思想이나 感情을 文字 또는 繪畵등으로 기록한 것이어야 하고 ②언제나 容易하게 便覽할 수 있어야 하고 ③일정한 分量, 즉 UNESCO 勸告로 본문 49面 이상이 되어야 한다면, 텔레비전을 통해 放映되는 것이 책을 대신하기에는 어림도 없는 노릇이다. 텔레비전의 프로그램이 제아무리 내용이 풍부하다고 하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용이하게 便覽할 수 있어야 한다는 책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12].

이어지는 글에서도 전파 미디어가 신속하고 광범한 대상을 포착할 수 있으나, 순간적이요 확실한 대상이 없고, 선택이 불가능한 데 반해, 활자 미디어는 전파처럼 순식간에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어도 일반에게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고정시켜,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고, 또한 영구히 보존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

---

12) <電波미디어와 活字미디어>(1970. 11. 15)

이렇듯 ≪讀書新聞≫은 전파매체에 대한 활자매체의 위축을 막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독서운동의 주자로 나섰으며, 독서 인구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읽을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신문이다.

(2) 국어교육 일반

본고에서는 주로 독서, 즉 읽기교육과 관련된 기사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그러기 전에 이를 제외한 국어교육 일반론을 잠깐 짚고 넘어가기로 하겠다.

먼저 다수를 차지하는 '한글'과 '한자'의 문제에 대한 기사들을 살펴 보겠다. 이 문제는 근대 계몽기부터 뿌리깊게 이어져 온 논란거리이다. 특히 이 시기의 신문들에는 그 찬반 양론이 다수 게재되었고,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었다(졸고, 2004: 471). 국어과에 있어서도 한글 전용이냐 국한문 혼용이냐 하는 문제는 어문 정책의 변천을 야기시키는 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문제였다(윤의순, 1988: 114).

≪讀書新聞≫에서도 이와 관련된 기사들이 매호 게재되고 있는데, 주로 한글 전용론과 한자병용론(혼용론)의 문제들을 논한 기사들이다. 주요 기사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국어순화 주요 관련 기사

| 제목 | 발간일 | 내용 | 기고자 |
|---|---|---|---|
| 國語生活의 反省 | 1970년 11월 22일 | 자존심 있어야 국어순화, 외래어 남용은 불건전한 정신에 기인, 아름다운 말에 대한 자각과 노력 필요 | 李基文 |
| 책 속에 조국이 있음을 어려서 깨닫게 해주자 | 1970년 11월 29일 | 동화의 언어의 문제점, 번역의 문제점. 아름다운 국어사용하여 민족의식 심어주도록 | 윤석중 |

| | | | |
|---|---|---|---|
| 한글만 쓰기의 주장 | 1970년 11월 29일 | 최현배의 유고 부분 게재. 한글은 나라힘의 샘터 | |
| 漢文교육강화 촉구 | 1970년 11월 29일 | 한국어문교육연구회 등 7개 학회 한문교육 강화 촉구 | |
| 漢字·漢文 敎育을 강화해야 한다. | 1970년 12월 13일 | 한글전용하면 국민 지성 저하시키고 문화전통 말살 | |
| 역사의 수렛바퀴를 뒤에서 끌어당기지 말자 | 1970년 12월 13일 | 한문에 집착하려는 고집을 버리고 한글전용을 | 허웅 |
| 冊과 本 | 1970년 12월 13일 | 우리말에서 일본적 잔재를 청산하여야 | 崔洛升 |
| 또다시 冊과 本 | 1970년 12월 20일 | 冊의 우리말은 「앗」, 本도 일본어 아니다 | 강준원 |
| 國語敎育과 漢字문제 | 1970년 12월 13일 | 대학생 한자시험 결과 살력의 저하현상 보임, 한자교육 필요 | 南廣祐 |
| 개성적 문화창조와 한글전용 | 1970년 12월 27일 | 문제있지만 장점 북돋우며 한글전용해야, 사대사상의 옹고집 버리길 | 박건신 |

<표 1>에서는 대표적인 것만 들었지만 매호마다 빠짐없이 한자 혼용과 한글 전용의 문제가 다루어졌고, 각계각층의 찬반론들이 게재되었다.

관련 기사 중에 하나 주목되는 것은 <漢字·漢文 敎育을 강화해야 한다>(1970년 12월 13일)라는 글이다. 교과서에서 한자를 폐지함으로써 생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1970년 11월 25일, '한국어문교육연구회'(韓國語文敎育硏究會), '국어국문학회'(國語國文學會), '국어학회'(國語學會), '진단학회'(震檀學會), '백산학회'(白山學會), '한국한자회'(韓國漢字會), '한국한학회'(韓國漢學會), '철학연구회'(哲學硏究會) 등 7개 학술 단체가 공동으로 한자 교육의 부활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에는 당시 어문교육이 국민 지성을 저하시키고 교육 효과를 감퇴시키며, 학술의 발전을 저해하고 국어의 혼란을 야기하며, 문학의 전통을 말살하고 국제적 고립을 초래하는 결과를 빚어냈다고 지적한다.

반론의 논거로서 70년도 개정 교과서의 실례를 보이고 있는데, 괄호로 한자를 쓰던 것을 없애거나 영어로 대체함으로써 생기는 폐해의 예를 다음과 같이 보이고 있다.

> ◇국어 ▲수필은 청자연적이다 ▲고칠 현삼제를 취하는 버릇 ▲남아수독오거서는 박이 부정이 그 통폐요 ▲만상은 곧진애요, 골편, 너의 대리석은 흙의 경결, 너의 금은은 흙의 잔사에 지나지 못하고 (.....) ◇상업일반 ▲추진력 장치상…기선(steamship) 디이절(bieesel) 범선(sailling vessel) 전기모우터선(moter ship)[13]

위의 예처럼 문장의 대부분이 한자어인데, 한자를 병기하지 않아서 뜻이 잘 통하지 않거나 영어를 병기함으로써 번거로워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교재의 비정상적인 표기를 한자교육의 부활로 하루 속히 갱신해야 한다고 주장을 덧붙이기도 했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이 같은 지면에 동시에 실려 있는데, 허웅의 <역사의 수렛바퀴를 뒤에서 끌어당기지 말자>로 이에 대한 강력한 반대론을 펼쳤다.

이 시기는 또한 '국어순화론'이 활발하게 논의되었던 때로 일반 신문에서도 자주 거론된 문제였다. ≪讀書新聞≫에서도 관련 기사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그 한 예로 <國語生活의 反省>(1970년 11월 22일)을 들 수 있다. 게재된 본문을 소제목을 들어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現代판 吏讀: 자연과학, 특히 의학에 있어서는 영어 단어에 우리말로 토를 단 괴상한 文體가 거의 일반화되고 있고, 이것은 흡사 옛날 한문에 우리말의 토를 달아쓴 吏讀와 본질적으로 다를것이 없다. 2. 「칵테일」과 「짬뽕」: 외래어 내지 외국어의 남용으로서 서구제어(歐美諸語)가 많이 섞인

13) <漢字·漢文 敎育을 강화해야 한다>(1970. 12. 13)

것은 「칵테일」, 일본어가 많이 섞인 것은 「짬뽕」이다. 3. 外來語와 外國語: 무절제하게 외래어를 받아들이는 것은 그 국민의 건전하지 못한 정신상태, 가령 열등복합(劣等複合) 같은 것, 외래어의 범람보다도 더욱 심각한 것은 외래어의 홍수다. 4. 放送과 方言: 방송은 원칙적으로 표준어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요즈음 우리나라 방송은 표준어보다도 오히려 방언을 더 많이 전파에 싣고 있는 듯이 느껴진다. 5. 文字生活의 混亂: 언어생활이 이 모양이니 문자생활에서도 혼란이 심하다. 글자 하나 문장부호 하나도 정확히 쓰지 못하고, 게다가 한편에서는 「한글 전용」을 한다고 해서 젊은 세대는 漢字를 외면한지 오랜데, 아직도 한글 전용에의 길은 멀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학술서적이나 신문 잡지도 그대로 한자를 쓰고 있으니 혼란하기 그지없다. 6. 外來語의 表記: 지금까지 출판된 여러 국어사전들을 보면 외래어 표기법이 제각각이다.[14]

필자는 이와 같이 국어 생활을 반성하면서 국어의 순화는 요컨대 온 국민의 자존심의 바탕 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위에서 말한 우리의 언어 문자 생활의 어두운 단면들은 모두 자존심을 상실한 열등의식에서 생겨난 것이므로 이것을 극복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15]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동화 작가 윤석중이 쓴 <책 속에 조국이 있음을 어려서 깨닫게 해주자>(1970년 11월 29일)라는 기사이다. 필자는 8·15 해방 이후 가장 심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이 '어린이 책'이라고 지적한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아동도서들은 일본말 책들의 재탕이어서 우리 글의 참맛이 우러나지 않는 것이 수두룩하다. 이것은 번역가들의 잘못이 크다며 각계 전문가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

14) <國語生活의 反省>(1970. 11. 22)

15) 이 외에 <外國語의 홍수>(1970. 11. 15)를 대표로 들 수 있는데, 외래어의 남용과 그 폐해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 그 나라말을 잘 알고, 우리글을 잘 다루는 문학자, 교육자, 역사가, 과학자들이 어린이 독서 인구에 눈을 돌려,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요, 하늘로 치솟는 빌딩의 응접실 장식용 서적들로 재미를 톡톡히 보는 출판업자들 가운데, 누군가가 나서서, 먼 앞날을 내다보며 어린이책 다시 꾸며내는 작업에 손을 대 주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잘 다듬어진 아름다운 우리말로 엮어진 책들과 친하게 되고, 우리글의 뛰어남과 대견함과 고마움을 깨닫게 된다면, 책사랑, 나라사랑이 저절로 되어, 책 속에 조국이 있음을 아침 저녁으로 발견하게 될 것이다.16)

아름다운 우리말이 담긴 어린이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 뿐만 아니라 출판사 측의 의식적 개혁과 실천이 필요함을 촉구하는 내용이다.17)

그림 4 ≪文章力과 文化 수준≫

또 다른 국어교육 관계 기사로 쓰기교육의 내용을 담고 있는 <文章力과 文化 수준>(1970년 12월 20일)을 들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가정 주부들이 자식의 논문을 지도할 만큼 문장력이 있음을 예로 들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통틀어 우리의 문장력은 외국 사람에 비해서 열등하다고 지적한다. 문장력이 열등하다는 것은 그 나라 문화 정도가 얕다는 증좌(証左)라면서, 그 원인을 작문교육을 소홀히 하는 교육제도에서 찾고 있다.

> 국민학교, 중·고등학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의 과정(科程) 편성상의 일대 결함이 있다고 지적하고 싶고 (.....) 그 교육제도는 미국식 위주로 모방

16) <책 속에 조국이 있음을 어려서 깨닫게 해주자>(1970. 11. 29)
17) 필자는 이 글의 후반부에서 어린이 책에 있어서, 번역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 책을 읽을 수 있는 어린이의 나이를 책마다 매겨 놓는 일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 해 왔다고 볼 수 있겠는데, 왜 작문(作文)과정만은 도외시한 것처럼 되어 있는 꼴인가? 미국만 하더라도 국민학교 과정에서부터 작문과정이 있고 내리달아 대학에까지 각기 진학(進學)의 정도에 따라 적잖은 시간이 짜여 있는데 비해서 우리네의 현황은 어떠한가? (....) 배운 것을 머리 속에다 기억만 해두면 족한 것이 아니라 때때로 배운 것에 대한 자기나름의 감상이든가 의견 정도라도 어떠한 형식으로든 표현해 버릇하도록 일찌감치 지도하지 않으면 학문이나 문화의 발달은 퇴보하거나, 위축하고 마는 것이다.

계속해서 미국의 작문과정을 예로 들고 있는데, 미국은 고등학교까지 편지쓰기 지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엔 소년시절에는 간독(簡牘) 혹은 척독(尺牘)이라 하여 서당에서 글(漢文)을 배워서 천자문(千字文)이라도 떼고 나면 집안 어른들이 편지쓰기를 가르쳐주곤 했다고 환기시켰다. 사소해 보이지만 이러한 교육은 작문교육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위와 같이 ≪讀書新聞≫은 국어교육 일반론에 대한 기사들이 꾸준히 쓰여짐과 동시에 교육 일반론도 다수 쓰여졌다. 특히 교사, 교수 등의 교육자들의 글에 지면을 많이 할애했다. 일례로 <敎師의 發言>란을 두고 현직 교사를 통한 교육 문제를 고정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이 주목된다. 교육 현장에서의 문제점들을 논의하는 것이기에 보다 실제적이고 설득력이 강하다.

구체적인 기사 몇을 들어보면, 먼저 <칠판 교육의 장벽을 뚫자>(1970년 11월 22일)는 제14회 '전국교육연구대회'(全國敎育硏究大會)의 내용을 다룬 것인데, "全人敎育 지향해야. 注入敎育 모순 없애라. 進展없는 敎育방법. 學校敎育개선은 國際조류" 등의 부제를 볼 수 있다. 그 후속편인 <칠판 교육의 장벽을 뚫자(下)>(1970년 11월 29일)에서는 대학의 기능 정상화와 학교와 사회의 연대강화가 시급함을 논하고 있다. 또한 교사의

권위 추락의 문제를 다룬 것으로, <동생 눈의 티보다 내 눈의 들보부터>(1970년 11월 8일), <교원의 사기>(1970년 11월 22일)를 들 수 있는데, 교사의 권위를 되찾아야 교육이 바로 선다고 주장하는 글이다.[18]

<표 2> <硏究所> 시리즈(1970년 11월 29일 제4호부터)

| 제목 | 발간일 | 내용 |
|---|---|---|
| 서울大<br>東亞文化硏究所 | 1970년 11월 29일 | 奎章閣도서목록 작성. 8만명 수록 인명사전 발간 서둘러 |
| 高麗大<br>民族文化硏究所 | 1970년 12월 6일 | 문화발굴의 전초 -연구소 소개. 57년 '한국고전 국역위'로 발족 |
| 延大<br>社會科學硏究所 | 1970년 12월 13일 | 『客主』 등 27편의 논문 발표. 행정 합리화와 능률향상에 영향 커 |
| 成大<br>大東文化硏究所 | 1970년 11월 22일 | 儒學 등 傳來의 學問硏究 1차로 古典의 影印 作業.<奎章閣 圖書 156選> |

<硏究所>란을 두고 각 대학의 연구소를 소개하고 있음도 눈에 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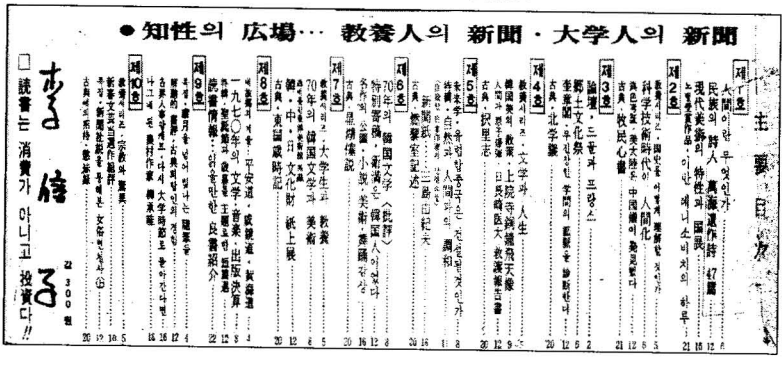
살펴본 바와 같이, ≪讀書新聞≫은 국어교육 일반론을 다루고 있으며, 나아가 교육문제 등에도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국어교육에 관한 논의들은 앞으로 다루어질 독서교육론 외에 한자병용, 한글전용의 문제, 국어순화론 등에 대한 내용들이다.

18) 이 외에도 스티븐 J. 탠소의 사회 참여에 대한 견해를 실은 <大學의 社會參與>(1970. 11. 15), 학교와 지역사회 결부 시도, 교사(校舍)와 직업교사 없앤 미국의 교육방법을 소개한 <實驗敎育의 開拓者>(1970. 11. 17), 각 나라 유학에 필요한 상식과 문제점을 논한 <海外 유학은 필요한가>(1970년 12월 13일) 등도 교육 일반론으로 들 수 있다.

## 2) 독서의 대상: 무엇을 읽을 것인가

### (1) 교양과 독서

〈표 3〉 《讀書新聞》 主要目次




〈표 4〉 문학 관련 기사

| 분류 | 문학관계 기사 |
|---|---|
| 제1호(1970년 11월 8일) | 民族의 詩人 萬海遺作詩 47篇. 노벨受賞作品: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 |
| 제2호(1970년 11월 15일) | 古典: 牧民心書 |
| 제3호(1970년 11월 22일) | 古典: 北學議 |
| 제4호(1970년 11월 29일) | 教養시리즈: 文學과 人生.<br>古典: 擇里志 |
| 제5호(1970년 12월 6일) | 特輯: 自然과 人間과의 調和(일본 단편). 古典: 練藜室記述 |
| 제6호(1970년 12월 13일) | 70年의 韓國文學 <批評>. 名作의 公園·小說·美術·舞踊감상. 古典: 星湖僿說 |
| 제7호(1970년 12월 20일) | 70年의 韓國文學과 美術<br>古典: 東國歲時記 |
| 제8호(1970년 12월 27일) | 1970년의 文學·音樂·出版決算. 特輯: 聖誕節과 歲暮를 主題로 한 短篇選. 讀書情報: 읽을만한 良書紹介 |
| 제9호(1971년 1월 3일) | 특집: 歲月을 넘어 빛나는 隨筆들 解題的 書評: 古典희랍인의 경험 나그네 된 農村作家 柳承? |
| 제10호(1971년 1월 10일) | 新春文藝當選作總評<br>古典에의 招待: 懲毖錄 |

<표 3>은 ≪讀書新聞≫ 제본판(創刊号~10号: 1970年 11月 6日~1971年 1月 17日)에 게재된 전체 주요 목차이다.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실린 기사의 주제별 현황을 보면, 교양, 역사, 사회, 문화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비교적 문학 관련 기사 비율이 높다.

특별히 문학 관련 기사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이를 보면 시, 소설, 수필 등의 장르를 고르게 소개하고 있으며, 해외 명작 뿐만 아니라 고전 작품을 꾸준히 게재하고 있고, 문학에 대한 비평 등도 싣고 있다.

실제 기사들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1970년 노벨 수상작인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1970년 11월 8일)라는 기사처럼 이슈가 되는 해외 작품들이 전재되거나, <名作의 公園>란[19]에서 꾸준히 소개되고 있다. 또한 <古典에의 招待>란을 통하여 우리의 고전을 시리즈로 소개하고 있는데, 정약용의 『牧民心書』, 박제가의 『北學議』, 이긍익의 『古典練藜室記述』, 이익의 『星湖僿說』, 홍석모의 『東國歲時記』, 유성룡 『懲毖錄』 등으로 주로 작가의 생애와 작품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다.

문학평론에 관한 것은 제시된 표 외에도 <詩와 共感引力>(1970년 11월 22일), <11월의 시단평(詩壇評)>(1970년 11월 22일), <韓龍雲의 人間과 시>(1970년 11월 18일) 등과 제6호부터 제8호까지 <70년의 韓國文學>을 정리하는 특집이 대표적이다. 제6호(1970년 12월 13일)는 임헌영(任軒永)의 글로 새로운 이슈의 대두 속에 비교적 활발한 작업이 있었던 '리얼리즘 문학론'과 '민족문화론' 등 70년의 한국 문학을 정리하고 있고, 제7호(1970년 12월 20일)는 김현승(金顯乘)의 글로 시의 표현 언어를 확대하고, 내용·형식이라는 두 경향 사이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8호(1970년 12월 27일)는 염무웅(廉武雄)의 글로, 농촌소설이 삶의 구체성을 드러내는 리얼리즘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19) 여기에서는 음악, 미술, 연극, 문학 등의 문화 전반을 다루고 있는 칼럼이다.

작가나 일반인들이 투고한 시나 소설도 매호마다 무수히 보이며. 특히 신년 초인 제9호(1971년 1월 3일)에서는 특집으로 「청년에게 아뢰노라」(李光洙), 「딸깍발이」(李熙昇), 「어린이 찬미」(方定煥), 「아름다운 여인」(盧天命), 「帽子철학」(A. 가드너), 「알콜에 관하여」(토마스 만) 등이 한날에 실리기도 했다.

매호마다 <나의 讀書遍歷>란에 명사들의 독서 경험담이 시리즈로 게재되고 있는데, 권위에 호소하여 독자들의 독서를 유도하려는 신문의 성향을 드러낸다.

〈표 5〉 나의 讀書遍歷

| 제목 | 발간일 | 내용 | 기고 |
|---|---|---|---|
| 輕洋食 메뉴 | 1970년 11월 8일 | 우리 고전의 섭렵과 탐구 필요 | 梁柱東 (文學博士) |
| 雜讀과 愛書 | 1970년 11월 15일 | 책을 가리지 않는 독서습관, 아끼는 책 소개 | 呂石基 (英文學者) |
| 「로빈슨 크루소」 以後 | 1970년 11월 22일 | 나의 독서 경험. 인상깊었던 작품 | 鄭炳租 (英文學者) |
| 카프카의 世界 | 1970년 11월 29일 | 나의 독서 경험, 카프카의 매력 | 朴順女 (小說家) |
| 演劇과 犯罪 | 1970년 12월 13일 | 법학서를 중심해 마구잡이 속독 | 李炳勇 (辯護士) |
| 「醫師의 告白」 以後 | 1970년 12월 20일 | 의학 테마로 한 소설에서 배운 인간애 | 劉漢徹 (評論家) |
| 冊만이 獨學의 스승 | 1971년 1월 17일 | 책은 끝없는 학문의 보고(寶庫) | 柳光烈 (논설위원) |

문학 기사 외에도 연극, 음악, 미술 등의 예술 일반 분야에 대한 기사들이 상당수 있다. 대표되는 기사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20]

20)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新聞社設 70年에 비친 韓國女性의 苦役史>(1970. 1. 17)

〈표 6〉 珍奇 · 奇本

| 기사명 | 발간일 | 내용 |
|---|---|---|
| 康允浩교수의 「尋常小學」(卷一) | 1970년 11월 8일 | 舊韓國때 편찬된 첫 敎科書, 敎科書用 도서 3백20종 소장 |
| 金東旭 교수의 「天主讚歌」 | 1970년 11월 15일 | 崔도마 神父가 쓴 첫 찬송가, 3년 전 入手, 忠淸道서 筆寫된 듯 |
| 白淳在씨의 「親睦會 會報」 | 1970년 11월 22일 | 日本 유학생이 만든 韓國最初의 雜誌 · 開化期의 손꼽히는 主要史料 |
| 鄭貞植교수의 「五倫歌」 | 1970년 11월 29일 | 間島서 발간된 「唱歌集」, 滿洲國 강덕(康德 5年刊) |
| 河東鎬씨의 「朴一淵詩抄」 | 1970년 12월 6일 | 新京서 발간된 유고시집, 한지(韓紙)의 판화 5점 곁들여 |
| 吳漢根 씨 所藏 朴殷植 著 「韓國痛史」 | 1970년 12월 13일 | 上海서 발간된 舊韓國 亡國史 |
| 李謙魯씨 所藏 李能和 著 「春香綠」 | 1970년 12월 20일 | 漢文本 판소리 「춘향전」 저자 친필 서명이 특색 |
| 張師勛교수의 「玄琴譜」 | 1970년 1월 3일 | 거문고를 위한 樂譜 高宗 초기에 작성된 것 |
| 白麟씨 所藏 「農政新編」 | 1970년 1월 17일 | 安宗洙 저술 서양 근대서적 참고한 농업서적 |

그림 5 ≪眞本 · 奇本≫

이 외에도 철학으로는 안병욱(安秉煜)의 <哲學과 人生>, <人間이란 무엇인가>, 역사로는 이기백(李基白)의 <國史를 어떻게 理解할 것인가>(1970년 11월 15일)와 이병수(李丙壽)의 <衛滿은 韓國人이었다>(1970년 12월 6일)이다. 과학과 환경으로는 이종진(李鍾珍)의 <科學技術時代의 人間>(1970년 11월 15일) 등이 대표적이다. 이상

로서 여성문제를 지면의 2면의 지면을 할애하여 연재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讀書新聞≫의 읽을거리를 보면 문학, 역사, 철학, 미술, 음악, 연극, 과학 등에 걸쳐 교양을 쌓게 하는 다양한 분야의 글들이 게재되고 있다. 이것은 독자들에게 1차적으로 신문의 읽을거리이기도 하지만, 읽기 대상에 대한 잠재적인 선택을 간접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7〉 演出노트

| 기사명 | 발간일 | 기고 |
|---|---|---|
| 許生傳 | 1970년 11월 8일 | 許圭 |
| 10分 | 1970년 11월 15일 | 李南雙 |
|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나랴 | 1970년 11월 22일 | 崔仁勳 |
| 옥합을 깨뜨릴 때 | 1970년 11월 29일 | 金洙容 |
| 리골레토 | 1970년 12월 6일 | 吳鉉明 |
| 로물루스 大帝 | 1970년 12월 13일 | 李眞淳 |
| 李舜臣과 7年戰爭 | 1970년 12월 20일 | 申相玉 |

〈표 8〉 名作의 現場

| 기사명 | 발간일 | 기고 |
|---|---|---|
| 베토벤-그 작품과 비인의 女人 | 1970년 11월 8일 | 曺祥鉉 |
| 고갱과 타히티 | 1970년 11월 15일 | 鉉鏡子 |
| 「天使여 고향을 돌아보라」의 캐로라이나 劇場 | 1970년 11월 22일 | 李根三 |

⑵ 서적 소개와 독서 대상의 선정

그림 6 ≪新刊도서≫ ≪新刊書評≫

소위 말하는 양서(良書)는 좋은 책이다. '무엇을 읽을 것인가'의 '무엇'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신문은 창간호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양서를 소개하는 지면을 매호마다 상당량으로 할당하고 있다.

그 예로 <新刊圖書>와 <新刊書評>은 고정란으로 총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예술, 어학, 문학 등의 분야에서 신간 서적에 대한 소개와 서평을 싣고 있다.

제8호(1970년 12월 27일)에는 <讀書情報>가 신설되었는데, 양서의 선택, 구입 등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일종의 독서정보란으로서 '독서신문 양서선정회'에서 선정한 신간(新刊)·구간(舊刊) 등에서 가려뽑은 책들을 1면 전체를 할애하여 소개하고 있다.

또한 신문의 성격상 광고 대부분이 책에 대한 것이다. 주로 출판사별로 광고하고 있으며, 문고판 시리즈나 전집류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그런데 독서의 대상은 어떤 책이 출판되느냐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와 관련된 기사로<어떤 책이 나와야 할까>(1970년 11월 8일)를 꼽을 수 있는데, 출판되어야 할 책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각 분야의 명사 2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것으로 "1. 어떤 책이 나와야 할까? 2. 외국의 책 중에서 國內에 번역, 소개되었으면 하는 책은?"이라는 2개 항목에 답한 내용이다. 이에 대한 답들을 보면, 민족의식을 높여 주는 책, 아동학 분야의 책, 실리있는 문고판, 비평 곁들인 고전 등이 더 출판되어야 하고, 시대물보다 고전이, 전집류보다 단행본이 필요하며, 장서용 책을 지양해야 한다고 답하고 있다. 또한 형식적인 측면에서 책임있는 편집, 보기 좋은 책의 장식 등으로 답한 경우도 있다. 소개되었으면 하는 번역 분야는 문학, 과학이론, 의학, 철학, 교육, 음악 등의 분야로 구체적인 책 제목을 밝히기도 했다.

그림 7 ≪책광고≫

무엇을 읽을까에 대한 직접적인 논의는<現代人과 餘暇>(1970년 12월 27일)라는 기사를 들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좋은 책을 읽는 일로 여가를

선용하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고 일시적 흥미거리에 몰두하며, 책을 읽는다 하더라도 오락 위주의 책읽기가 대부분인 세태를 비판한다. 오락을 위한 책읽기보다 마음의 양식이 될 책을 읽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금자(金字)로 장정한 호화판 전집을 실내 장식용으로 사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충실한 책을 읽기 위해서 사는 기풍이 앞서야 한다고 썼다.

또 다른 예로 <混沌에서 定着으로>(1970년 12월 20일)를 들 수 있는데, 이 기사문은 출판계의 발간과 관련하여 읽기 대상의 문제를 다룬 것이 특징적이다.

> 1969년도의 한국 출판계는 무협소설(武俠小說)과 다큐멘터리 전쟁기록이 판을 쳤다고 할 수 있다. 출판이 시대의 추세, 독자의 기호에 민감해야 한다고 하지만 수년을 거듭한 무협소설이나 전쟁기록을 계속적으로 출판한다는 것은 출판기획으로서 두뇌의 빈곤을 단적으로 드러낸 결과이다.[21]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독자들의 기호에 민감한 출판사들은 1969년에서 1970년 사이에 와서는 독자들의 취향 전환에 맞추어 '한국문학전집류'를 다투어 출판했고, 또 '한국학'의 붐을 따라 그 관련 서적들을 내놓기 시작했다. 고전에 대한 관심도 대두되어 우리나라 것은 물론 외국의 책도 번역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바람직한 것이며 독자들에게 좋은 읽을거리를 제공하는 것이라 쓰고 있다. 앞으로도 학술서, 고전, 한국학 관계 영역(英譯) 등의 양서들은 지속적으로 출판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독자들에게 좋은 읽을거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22]

1971년 1월 3일자 <讀書指導 6 - 家庭文庫의 설치>는 독서지도를 위

---

21) <混沌에서 定着으로>(1970. 12. 20)

22) <低質 全集物의 범람>(1971. 1. 3)에서도 '사무라이' 소설들이 범람하는 출판계의 현실을 비판하면서 청소년들에게 끼칠 악영향을 염려하고 있다.

한 지면으로 뒤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나, 부분적으로 읽기 대상에 대한 논의가 있다. 내용을 보면 '가정문고'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도서를 선택하여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라며 다음과 같은 분류의 도서들이 선택되어야 한다고 했다.

> 1. 기본적인 참고도서를 준비한다. 백과사전, 국어사전, 외국어사전, 아동용 학습백과사전, 연감류, 지도 등 2. 인문 사회과학에 관한 것. 3. 자연과학에 관한 것. 4. 예술적인 감상을 할 수 있는 것. 5. 문학작품—고전과 현대작품으로서 대표적인 것. 6. 취미 오락적인 것. 7. 특히 가정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특수주제의 도서.[23]

이러한 부류의 도서를 선택할 경우 베스트셀러라든가 또는 평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구입하지 말며, 구입할 도서의 저자, 신문, 목차 등을 잘 읽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믿을 수 있는 출판사인가를 살피며, 가정문고는 가급적으로 단행 도서를 중심으로 선택하여 구성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논의를 보면 실제로 무엇을 읽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을 지적해 주기보다 일반론을 펼친 경우라고 하겠다.

### 3) 독서의 방법: 어떻게 읽을 것인가

#### (1) <讀書指導>란의 독서 방법

≪讀書新聞≫은 제4호(1970년 11월 29일)부터 <讀書指導>란을 두고 7회에 걸쳐 독서 지도론을 연재하고 있다. 당시 '國立中央圖書館讀書' 지도

23) <讀書指導 6 - 家庭文庫의 설치>(1971. 1. 3)

담당관인 김경일(金京一)이 필자로서, 그 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970년 11월 29일자 제4호에서는 <讀書指導1 - 25分間 讀書法>에서는 독서 습관을 기르기 위한 방법으로서 매일 25분간을 투자하라고 제안한다.

그림 8 ≪25分間 讀書法≫

독서방법의 첫걸음으로서 독서시간을 어떻게 정하고 또 어떻게 효과적으로 독서하여야 할 것인가하는 문제에 대하여 『25분 독서법』을 소개하기로 한다. 미국의 우리암·라이리 박사는 현대생활 속에서 아무리 바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루에 25분 정도는 독서를 위해서 배당할 수가 있다고 했다. 물론 25분을 배당하는 데는 책을 읽어야 하겠다는 어느 정도의 결심이 있어야 한다. 라이리박사는 독서의 능률이 가장 높아지는 것은 처음 시작하여 20분에서 25분이라고 말한다. 이 시간 내에서 피로도 덜 느끼고 정신을 집중시킬 수 있다는 과학적인 근거로서 『25분간 독서법』을 제창하고 있다.[24]

독서와 같이 사색을 수반하는 일에는 정신 집중이 필요한데, 독서를 시작해서 25분까지가 가장 적당하며 그 이상이 되면 피로가 오기 시작하면서 능률이 떨어진다. 따라서 25분 정도 독서를 한 다음에는 일단 쉬도록 한다. 쉬는 시간은 4, 5분 정도가 적당하고, 이 휴식은 새로운 독서를 시작할 때에 소유하고 있던 힘을 다시 소생시켜 주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 장시간 계속해도 피로가 덜 축적되며 능률면에서 효과적이라고 한다. 만일 이와 같이 하루 동안에 반복을 하지 않더라도 매일 적당한 시

24) <讀書指導1 - 25分間 讀書法>(1970. 11. 29)

간을 택해 25분씩만 실시한다면 1개월이면 750분이 되고 시간으로는 12시간 반이 된다. 이 시간이면 두 권의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1개월에 평균 두 책을 읽는다고 가정하면 1년이면 24책을 읽을 수 있다면서 이 방법을 권고하고 있다.

그림 9 ≪能率的인 讀書法≫

1970년 12월 6일자(제5호)에서는 <讀書指導2 - 能率的인 讀書法>이라 하여 2회를 싣고 있다. 이 글에서는 능률적인 독서방법이란 어떠한 것인가를 네 가지로 집약하여 설명했다. 첫째로는 언더라인을 치는 것이다. 책을 읽어 나가면서 중요한 곳이라든가 특히 감명 받은 곳이 있을 때는 그곳에 언더라인을 해 둔다. 이렇게 언더라인을 해 두는 것은 읽은 내용에 대한 이해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정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감상이나 아이디어를 써 두라는 것이다. 책에 언더라인을 하는 방법에서 더 나아가 책을 읽으면서 감상이나 아이디어 등을 책 여백에 필기해 둔다. 이렇게 하면 독서하면서 사색하고, 필기하면서 사색하는 '사색독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찾아보기(색인)를 만들라는 것이다. 책을 읽은 후 독서 메모장, 독서카아드(규격은 세로 7.5cm×가로 12.5cm) 등에 다시 참조하고 싶은 곳—즉 언더라인을 해 둔 곳과 감상이나 아이디어를 필기해 둔 곳의 항목과 페이지를 기록해서 보관한다. 이렇게 만들어 두면 후일 필요할 때 간단하고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네 번째, 자기만의 참고 도서관을 만드는 것이다. 앞서 언더라인을 하거나 감상 등을 필기해 두고 또 찾아보기를 만들어 둔 도서는 자신만의 지식과 정보의 축척이기 때문에 이 도서들은 가장 좋은 한 장서가 된다는 것이다.[25]

1970년 12월 13일자(제6호)의 <讀書指導3 - 速讀訓練法>에서는 속독법에 관한 독서지도를 하고 있다. 첫째, '눈운동의 훈련'과 둘째, '책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눈운동 훈련'은 먼저 '안구운동 훈련표'를 만들어 매일 5분 정도 안구 운동을 하는 것으로 그림의 줄선 하나를 한번의 정류점으로 정

그림 10 ≪안구운동 훈련도표≫

하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또는 위에서 아래로 안구운동을 진행한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처음보다 실제적인 것으로서 책이나 잡지를 이용하여 그림과 같이 정류점을 표시하고 그 간격을 점차 넓혀나가는 훈련방법이다. 둘째로 책을 이용하는 방법은 책을 자연스럽게 읽어가면서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독서의 속도를 빠르게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시간 측정 독서라고도 하며 시간을 측정하면서 독서를 하고 그 진행을 기록하는 방법이다.[26]

그림 11 ≪速讀訓練法≫

1970년 12월 20일자(제7호)에서는 <讀書指導4 - 讀書그룹의 運營>라는 제목으로 독서회 조직을 한 방법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① 독서그룹회원 ② 독서그룹의 지도자 ③ 집회회수와 장소 ④ 회비 ⑤ 독서회의 기록 ⑥ 독서회의 진행자 등 6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①독서그룹회원… 적당한 회원수로서는 5명이나 10명 정도가 가장 알맞

25) <讀書指導2 - 能率的인 讀書法>(1970. 12. 6)
26) <讀書指導3 - 速讀訓練法>(1970. 12. 13)

은 회원수. ②독서그룹의 지도자… 독서그룹의 지도자 선출은 한 사람이 오래도록 계속해서 담당할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교대제로 하는 것이 좋으며, 지도자의 교대는 대략 반 년 아니면 1년마다 한번씩 교대, ③집회 횟수와 장소… 학생들로 조직된 그룹은 매주 또는 매월 2회 정도, 직장을 가진 회원들일 경우에는 월1회 정도 적당. 집회 장소는 회원수가 적을 때는 회원의 집을 순회, 야외로 나가서 모임을 가지는 것도 효과적.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 ④회비… 회비는 가급적으로 적게 하는 것이 좋다. ⑤독서회의 기록… 독서그룹의 활동기록은 독서그룹의 발전이 기록된 것이며 또 그룹 회원들의 개개인의 독서활동의 성장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되며, 독서회의 진행이 보다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한다. ⑥독서회의 진행자… 진행자는 독서회에서 다루어지는 책에 관한 테마의 골자를 깊이 파고들어 갈 수 있어야 전문적인 연구와 집단 사고를 깊이있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술과 경험이 있어야 한다.[27]

그림 12 ≪讀書그룹의 運營≫

1970년 12월 27일자(제8호)에서는 <讀書指導 5 - 讀書生活 診斷法>으로 '자기진단법'을 제시하여 채점하게끔 하고 있다. 그 항목은 다음과 같이 10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다.

(문제1) 당신은 독서를 좋아합니까. (문제2) 당신의 독서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문제3) 당신의 독서 경향은 어떻습니까. (문제4) 당신은 1일 평균 몇 분 정도 독서를 하고 있습니까. (문제5) 당신은 평균 1개월에 책을 몇 권이나 읽습니까. (문제6)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 관계가 좋은 편입니

27) <讀書指導4 - 讀書그룹의 運營>(1970. 12. 20) 원문 요약.

까 나쁜 편입니까. (문제7) 당신은 독서를 통해서 얻은 지식을 생활에 적응시키도록 하고 있습니까. (문제8) 당신은 책 선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제10) 당신은 라디오나 텔레비전 시청을 계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28]

각 문제는 정도를 나타내는 5개의 항목이 제시되어 있으며, 해당 항목에 표시를 하는 것이다. 채점 방법은 문제 끝에 명시된 점수를 합산하는 것으로, 총 점수가 40점 이상이면 상, 30점 정도는 중, 25점 이하는 반성과 시정할 면이 많은 사람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그림 13 ≪家庭文庫의 설치≫

1971년 1월 3일자(제9호)에서는 <讀書指導 6 - 家庭文庫의 설치>를 독서 증진의 한 방법으로 들고 있다. 특히 이 글에서는 영상문화가 지배적인 시대에서 활자매체가 왜 필요한가를 설명하고 있다. 정신문화 생활에 있어서 라디오, TV 등의 영상문화 즉 보고 듣는다는 세계는 타인 의존의 인간, 또는 사회 적응만 하는 인간을 만들기가 쉽다. 자주적으로 자기 자신을 관찰하고 사고하는 주체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독서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또 보고, 듣고, 읽는다고 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종합적인 활용에 의해서 서로의 결함을 보충하여야 한다고 부연하고 있다. 여기에서 가정문고의 설치는 영상과 독서문화와의 조화를 가정에서 구현하는 하나의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보고 있다.[29]

1970년 1월 17일자 연재물의 마지막 회인 <讀書指導 7 - 學級 讀書會의 編成과 活動>에서는 '학급독서회' 운영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먼저

28) <讀書指導5 - 讀書生活 診斷法>(1970. 12. 27) 원문 요약.
29) 이것은 '무엇을 읽을까'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림 14 ≪學級 讀書會의 編成과 活動≫

'학급독서회'는 학급의 어린이들의 독서 능력을 기반으로 어린이들의 독서 생활에 자극을 주며 그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근본 목적이 있다고 했다. 동시에 그 실제 운영 방안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다. 먼저 도서 선택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학급의 모든 어린이들의 참여를 위해 그 선택 기준을 좀 낮게 정해서 선택하고 점차 높여나가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보았다.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생기지 않고 전체 어린이들을 포섭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과제독서'라든가 교과 연구를 위한 문제 해결도 모든 어린이들의 의견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어린이들이 제시한 의견들을 독서회에서 다루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했다. 학급독서회 계획은 저학년에서는 교사가 중심으로, 중학교, 고학년부터는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계획되어야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다고 쓰고 있다. 보다 구체적인 활동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① 읽은 책에 대한 느낌을 발표하게 한다.(저학년) ◀낭독=읽은 책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내용을 일부분 정하여 흥미있게 낭독하게 한다. (책 속의 그림을 보이기도 한다) ◀그림극=이야기의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하여 극화한다. 이 방법은 단계의식을 높이고 회화표현과 낭독의 힘을 길러주는 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독서퀴즈=읽은 책의 주인공을 중심으로 『나는 누구일까요』 또는 『다섯 개의 문』 등의 질문으로서 등장인물의 성격, 책이름 등을 알아맞히게 한다. ◀게임=청백의 두 팀으로 조직하여 책 내용에 대해서 서로 양팀에서 질문하여 알아맞히게 한다. 정답 속에 의해서 승부가 결정된다. 이 방법은 정확한 독해력을 기르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다.
② 독서회(중학년과 고학년) 독서 능력의 발달에 따라서 점차 내용이 높은

것 또는 국어교과의 단원에서 지적된 작자, 작품 등을 주로 선정. 작가의 작품 등을 조사하여 계통적으로 읽게 하고 또 느낌도 발표하되 여러 어린이가 토의할 수 있게 한다. 또 만화, 텔레비전 등에 열중할 시기이므로, 만화에 대한 이야기회, 탐정소설에 대한 이야기회, 여러나라의 옛이야기를 읽고 다른 점을 찾게 한다. 과학소설과 역사소설에 대한 이야기회, 우리민족의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회, 각 교과와 관련시켜 여러 가지의 주제로 토론하게 하며 녹음하였다가 다시 재생해 보면 토론의 내용과 문제점을 파악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교사는 위와 같은 학급독서회에서 얻어진 결과로 독서 경향, 독서 능력, 독서 생활에서의 문제점 등을 분석 평가하여 독서회 활동 계획에 반영시키고, 이를 통해 독서회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글은 독서와 토론을 연계시킨 경우라 하겠다.

<讀書指導>란 외에 읽기 방법에 대한 주요 기사로는 춘천성수중학교(春川聖修中學校) 교사인 김윤호(金潤浩)의 <學校敎育과 책읽기>(1971년 1월 17일)이다. 내용에서 필자는 학교교육에서 읽기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리적 과학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 독서력 증진을 위한 읽기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로 든 것은 안구운동 훈련을 통한 읽기 지도 방법이다.

사람은 누구나 일단 문자(글)를 보게되면 먼저 눈동자(眼球)가 움직이게 마련인데 이때 문자를 보는 안구는 낱말을 읽는 데 평균 빠르기로 원활하게 운동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범위의 좁은 응시영역(凝視領域)을 잡아 일단 정류(停留)하게 되어서 눈동자가 멈추고 있는 동안에 기호나 또는 문자군(文字群)이 지각(知覺)되고 이때 비로소 의미의 체계화가 이뤄지게 된다. 여기서 일단 지각이 이뤄지면 계속해서 안구는 그다음 응시영역으로 비약하게 된다. 따라서 글을 읽는다는 것은 이 안구의 「정류」와 「비약」의 반복

> 운동에 불과하다. (....) 학생들의 독서력을 향상시키는 비결은 독서 속도를 가로막고 있는 요인을 제거해 주는 일이 되겠는데 가장 보편적인 독서력 저해 요인은 「뒷걸음쳐 읽는 버릇」이다. 다시 말하면 학생들이 글을 빨리 읽지 못하는 것은 눈동자가 정지하는 시간이 길거나 아니면 자주 후퇴하기 때문이다.[30]

인용문에서 말하는 「뒷걸음쳐 읽는 버릇」은 이미 잊어버린 부분을 되풀이해서 읽는, 순전히 습관적인 것이며, 이미 읽은 부분에 대해 자기로서 확신이 없고 어휘, 숙어, 능력이 부족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독서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되풀이를 말고 곧바로 읽어내려가는 습관을 붙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음독(音讀) 읽기 지도 방법이다.

> 묵독(默讀)은 일반적으로 음독(音讀)보다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이미 널리 공식화되어 있으나, 학생들과 부딪쳐 보면 의외로 훈련이 소홀히 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적이 실망을 하는 일이 종종 있다. 소리를 내서 읽으면 아무리 빨라도 1분에 2백 단어 이상을 읽기가 어렵다고 한다. 국민학교에서 묵독의 지도는 현행 교육과정에 의하면 3학년부터 지도하게 되어 있다.

필자는 더불어 묵독 훈련의 예를 들고 있는데, 영국에서는 콩을 넣은 작은 주머니를 입속에 물려가면서까지 지도하고 있고, 미국 기타 여러 나라에서는 젓가락을 입에다 물리고 훈련을 시킨다고 한다. 필자는 음독의 습관을 없애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학생들에게 자기 손가락으로 입술을 막고 읽도록 지도하는데,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했다.[31]

세 번째로는 「낱말덩어리」(單語群)로 읽기를 지도하는 방법이다.

---

30) <學校敎育과 책읽기>(1971. 1. 17)
31) <學校敎育과 책읽기>(1971. 1. 17)

> 한 덩어리의 낱말을 하나의 글자라고 생각하고 지도하는 일이다. 눈은 한자 한 자씩(一字一字式) 인식되어서 종합적인 낱말이나 문장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한 덩어리로 된 문자군(單語群)으로 읽게 되기 때문이다.(....) 독서력을 2, 3, 4… 배로 늘리는 비결은 단어를 2, 3, 4개씩 한꺼번에 묶어 읽도록 가르쳐주어야 한다.[32]

독서 능률을 저해하는 이 세 가지 요인 중 어느 한 가지만 철저히 지도하기만 하면 다른 두 가지 요인은 저절로 고쳐지게 된다고 한다. 왜냐하면 이 세 요인은 서로 밀접하게 삼위일체가 되어 상호연관되어서 독서력 향상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세 가지는 빨리 읽기와 상관되는 것이지만 이해력에도 도움을 준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마치 자동차를 운전할 때 시속 25마일이면 주의가 헷갈리지만 1백20마일로 달리게 되면 운전사는 모든 정신을 드라이브하게 집중시킬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예를 들어, 빨리 읽기는 속도뿐만 아니라 이해력도 강화되어서 학생들의 지능 발달에도 도움이 되니 그 개발에 힘써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33]

대개의 독서 지도 방법론들은 주로 (1) 도서관 이용의 지도 (2) 학급 문고 운영 (3) 독서회의 조직과 운영 (4) 필독 도서 선정 (5) 독후감 쓰기 (6) 특별활동을 통한 지도 (7) 속독지도 등이 일반적인데(한철우, 1988: 21) 여기서 논의된 내용들도 이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는다. 그럼에도 독서지도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연속하여 게재함으로써 독서지도를 하고 있음은 의의가 있다. 또한 앞서도 지적한 바처럼, 이 신문이 겨냥한 독자층 중의 하나가 교사들이었다. 그래서 그 교육적 효과는 보다 컸으리라 여겨진다.

---

32) <學校敎育과 책읽기>(1971. 1. 17)

33) 독서 지도 방법론들은 주로 (1) 도서관 이용의 지도 (2) 학급 문고 운영 (3) 독서회의 조직과 운영 (4) 필독 도서 선정 (5) 독후감 쓰기 (6) 특별활동을 통한 지도 (7) 속독지도 등인데(한철우, 1988: 21), 논의된 내용도 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2) 독서하는 국민과 독서하지 않는 국민

게재된 기사에서 다른 나라에 비하여 독서량이 현저하게 뒤떨어지는 국내를 비판하는 기사들을 종종 볼 수 있다. 그 예로 먼저 <讀書界有感>(1970년 12월 20일)의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서하지 않는 민족이라 비판하는데, 그 원인은 즉물주의와 실리주의, 경제적 불황에 있다며, 이의 타개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책읽기가 싫은가 읽을 책이 없는가>(1970년 11월 15일)란 제목의 기사에서는 '학생논단 토론' 내용을 싣고 있는데, YMCA '學生論壇'에서 대학생들이 '책읽기가 싫은가? 읽을 책이 없는가?'란 주제의 토론을 벌였는데, 이날 발제 학생들은 우리 국민이 외국인에 비해 독서하지 않는 국민이란 평을 듣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① 讀者보다는 출판업계에도 책임의 일단이 있으며 ② 문교부의 교육정책에도 모순이 있고, ③ 국민을 바른 길로 인도해 가고 있는 매스컴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圖書館실무자로서 이 자리에 참석한 국립중앙도서관 사서과장 張一世씨는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독서不毛國이 되어가고 있는 현상을 ① 우리사회를 善導해 나가야 할 知識人 자체가 도서를 가릴 줄 모르며 ② 대학교수의 교수 방법에 결함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학생들 중에는 책을 안 읽는 대학생을 말하기 전에 오역(誤譯)과 오자(誤字)가 많은 등 읽을 만한 책이 없고, 고가로 폭리만을 취하려고 드는 일부 출판업자들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출판업계에 비난을 가하기도 했으며, 대학입시로 인한 정신적 압박감을 들면서 문교정책의 개선을 요구했고, 상업성을 띤 주간지나 방송 등의 매스컴에게 책임을 돌리기

도 했다.

<책방 없는 大學街>(1970년 12월 13일)에서는 대학 주변을 들어 책을 읽지 않는 학생들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다. 학교 근처에 정작 있어야 할 서점은 드문 대신, 다방, 당구장, 술집, 양장점들이 즐비한 대학가의 풍경은 대학이 상징하는 학구적 분위기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고 비판한다. 소비시장화한 대학 주변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우리와 반대로 독서 인구 비율이 높은 해외의 예를 들어, 독서하지 않는 우리 국민들에게 경종을 울리기도 했다. 일례로 <토막 常識>(1970년 11월 15일)이라는 기사는 영국, 프랑스 등의 출판계의 현황과 활기찬 독서 활동을 소개하고 있다. 프랑스와 일본에서는 음반 달린 책을 판매하여 '읽고 보고 듣는 책' 문화를 형성하고 있으며, 문고판이 붐을 이루어 언제 어디서나 책 읽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各國의 讀書운동>(1970년 11월 29일)에서도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의 독서운동과 독서교육의 실태를 소개하고 있다. 미국은 독서운동이 정부와 재단의 지원을 충분히 받고 있어 그 활동이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동도서를 활용하여 독서 인구를 확산시키고 있다. 일본은 교육의 주류가 독서운동, 독서지도에 집중되어 우리나라에 비하여 독서인구가 월등히 높다. 프랑스는 가정에서 가족간에 교대로 책을 구입하게 하여 다양한 책읽기를 실행하며, 신병훈련소에서는 신병들로 하여금 도서카드 기재 운동을 벌여 독서를 유도하고 있다고 한다. 이 기사 외에도 해외의 독서 경향을 파악하기 위한 기사들도 보이는데, 일례로 <美 10月 베스트 셀러>(1970년 11월 29일) 등과 같은 기사가 매달 <讀書저널>면에 게재되기도 했다. 이러한 해외의 독서계 소개는 단순히 소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 성공적인 독서 방법을 알려줌으로써 우리 국민도 이를 실천하게끔 유도하는 기사라 할 수 있다.

### 3) 독서 현황와 독서 운동

#### (1) 통계로 본 독서 현황

≪讀書新聞≫에서 주목되는 것 중에 하나는 주로 통계를 이용하여 국내의 독서 실태를 보도한다는 사실이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먼저 <讀書권장의 敎育을>(1970년 11월 15일)이란 기사는 기고자가 동구여상(東丘女商) 연구주임인 권기종(權奇宗)으로 고등학교 현장에서의 독서교육 문제를 다룬 것이다. 먼저 우리의 교육 현실에 대해서 비판했다. 시청각교육이나 교육공학의 발달로 과학적인 교육 방법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가해지고, 또 이와 같은 방법의 연구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최선의 방법이라 하나, 아직도 선진 제국(諸國)의 수준에 도달하기에는 요원하며, 또한 발달한 매스컴의 영향으로 사회 윤리와 국민정서가 지극히 혼란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부형 6백 명을 대상으로, 라디오, TV가 아동들의 학습에 주는 영향을 조사한 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

> ① 「학습상에 도움이 된다」가 11.0%, ② 「나쁜 영향을 준다」가 46.6%, ③ 「적당한 오락이 된다」가 14.8%, ④ 「여가 선용이 된다」가 22.4%로, 「학습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46.6%)가 지배적인 것을 알 수 있다.[34]

이러한 현실에서 학교나 혹은 사회에서 독서를 통한 청소년들의 사고력과 창의력 개발은 매우 필요한 일이며, 신중히 다루어져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조사에 의하면 전체 초·중고등학교의 25%만이 도서관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나마도 장서의 수는 보잘 것 없는 실정이라고 비판하

34) <讀書권장의 敎育을>(1970. 11. 15)

고 있다. 또한 서울시내 모 중·고 교사 1백 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장 독서를 많이 해야 할 그들이 한달 평균 경우 456.6페이지라고 밝혔다. 이 수치는 미국의 2%, 일본의 3% 밖에 되지 않는 근소한 독서량이라고 지적했다. 앞선 조사 결과에서 드러나듯이, 독서 인구 저하 현상은 라디오나 TV의 발달에 원인이 있다고 본다. 변천하는 현대 지식의 폭주는 독서를 통해서만이 그 폭을 넓힐 수 있고, 시간과 공간적인 제한이 많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얻는 것보다는 어느 모로 보나 편리하고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한국 ABC연구회'가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9개 도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 조사 대상 가구의 잡지 구독률은 23.9%로, 이는 68년도의 28.53%보다 약 3%나 낮아진 것으로 잡지도 별로 보지 않는 경향이 드러났다. 특히 일반 교양지들은 최고 7% 미만으로 나타났다.[35]

결어에서 필자는 독서 경시 풍조에 대한 해결책으로, 전파 미디어에 거리를 두고, 부모나 교육자들이 스스로 독서 생활을 충실히 할 것이며 청소년들에게 우량 도서를 권장하고, 솔선수범하는 데 힘을 기울일 것 등을 제안했다. 또한 학교마다 도서관의 시설과 운영에 대해서 보다 큰 관심을 쏟아야 하며, 교육 당국에서 학교를 인가할 때도 도서관의 시설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다른 기사로 <輿論調査에 나타난 讀書실태>(1970. 11. 15)도 주목된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1970년 1월 2일부터 10월 7일까지 제14회 도서전시회 관람자를 대상으로 독서실태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현대인은 어디서 어떠한 책을 구하여 얼마나 읽는가 등 9개 항목에 걸쳐 남자 3천 18명, 여자 1천 88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여기엔 서울 시민만

35) ≪東亞日報≫ 10월 22일자 기사에서 나타난 통계자료 제시.

이 참여하여 전국적인 '독서실태'라고는 보기 어려우나 여러 가지 흥미있는 사실을 드러내 주고 있다. 응답자는 서울에서도 독서에 관심있는 층을 대상으로 했는데, 실시된 통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설문 내용> ① 1년에 책을 얼마나 읽나 ② 하루 평균 독서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③ 한달 평균 도서 구입액은 얼마나 됩니까? ④ 장서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⑤ 최근에 읽은 도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은? ⑥ 왜 책을 읽습니까? ⑦ 어떻게 도서는 선택합니까? ⑧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도서를 구입합니까? ⑨ 주로 어떤 종류의 책을 읽습니까?[36]

문1) '1년에 책을 얼마나 읽는가'에 대한 대답을 보면, 일반 도서와 잡지 양쪽 모두 6권에서 12권까지 가장 많아 전체의 29%를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는 단행본 0권부터 6권까지 24%, 잡지에서는 12권에서 24권까지 26%로 드러난다.

문2) '하루 평균 독서시간은 얼마나 되나'에서는 1시간에서 2시간까지가 전체의 35.5%로 제일 많다. 30분 이내는 7%이며 3시간 이상은 12.5%로 나타난다.

▲ 第1問 얼마나 읽나

일반도서

| 수지% | 0~6권 | 6~12권 | 12~20권 | 20~30권 | 30권 이상 |
|---|---|---|---|---|---|
| 15~20세 | 17 | 24 | 24 | 14 | 21 |
| 20~30세 | 20 | 26 | 28 | 11 | 15 |
| 30~40세 | 31 | 31 | 17 | 10 | 11 |
| 40세이상 | 30 | 29 | 20 | 9 | 12 |
| 15~20세 | 20 | 27 | 23 | 15 | 16 |
| 20~30세 | 26 | 32 | 23 | 11 | 8 |
| 30~60세 | 51 | 31 | 11 | 0 | 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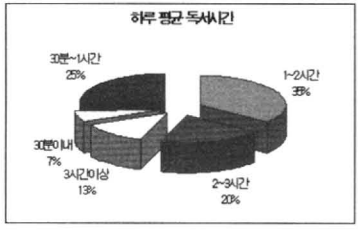
잡지

| 수지% | 0~6권 | 6~12권 | 12~14권 | 24권 이상 |
|---|---|---|---|---|
| 15~20세 | 24 | 32 | 26 | 18 |
| 20~30세 | 18 | 36 | 26 | 21 |
| 30~40세 | 18 | 29 | 22 | 21 |
| 40세이상 | 20 | 32 | 23 | 25 |
| 15~20세 | 27 | 39 | 22 | 12 |
| 20~30세 | 10 | 43 | 30 | 17 |
| 30~60세 | 5 | 60 | 26 | 9 |

36) <輿論調査에 나타난 讀書실태>(1970. 11. 15)

▲ 第2問
하루 평균 독서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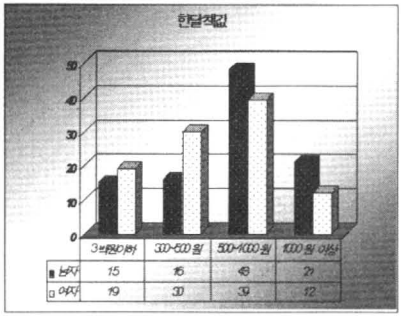
| | |
|---|---|
| 1~2시간 | 35.5 |
| 2~3시간 | 19.5 |
| 3시간이상 | 12.5 |
| 30분이내 | 7 |
| 30분~1시간 | 25.5 |




문3) '한달 도서 구입액은 얼마나 되나'에서는 5백원에서 천원까지가 제일 많아 전체의 43.6%이다. 천원 이상은 16%, 3백원까지는 17%로 독서불모라는 이야기를 무색케 한다. 더욱이 도서 전시회를 관람하러 온 사람들인 만큼 독서에 관심있는 계층이라고 보아 일반 국민들의 독서 구입 상황은 그보다도 훨씬 못 미칠 것 같다.

▲ 第3問 한달 책값

| 분류 | 3백원 이하 | 300~500원 | 500~1000원 | 1000원 이상 |
|---|---|---|---|---|
| 남자 | 15 | 16 | 48 | 21 |
| 여자 | 19 | 30 | 39 | 12 |




▲ 第4問 장서량

| 0~50 | 50~100권 | 100~200권 | 250~500권 | 500~1000권 | 1000권 이상 |
|---|---|---|---|---|---|
| 30% | 14 | 25 | 14 | 15 | 3 |
| 44.5 | 21.2 | 29.7 | 6.9 | 1.8 | 0.5 |

문4) '장서량은 얼마나 되나'에서는 권수는 0에서 200권까지는 여성의 비율이 높으며, 당연한 통계이지

만 250에서 1000권까지 칸에는 남자의 비율이 월등히 높다.

▲ 第5問 外書와 國內書籍

| 수자% | 外國서적 (번역포함) | 국내서적 |
|---|---|---|
| 남자 | 57 | 43 |
| 여자 | 51 | 49 |

문5) '최근에 읽은 도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책'에서는 외국 서적과 국내 서적을 들고 있는데, 외국 서적과 국내 서적의 장서량은 전자는 50권대, 후자는 40권대로 남녀가 비슷하나 외국 서적에서는 남자가, 국내 서적에서는 여자가 각각 우세한 수치를 보인다. 총 권수는 외국 서적(번역물 포함) 2백 31명에 비해 국내 것으로 1백 94명으로 나타났다. 외국 저작자들의 책이 더 인기가 있음을 보여준다.

▲ 第6問 왜 책을 읽나

| | 나이 | 인격함양 | 학술에도움 | 여가 |
|---|---|---|---|---|
| 남자 | 15~20세 | 73 | 17 | 10 |
| | 20~30세 | 74 | 11 | 15 |
| | 30~40세 | 77 | 10 | 13 |
| | 40세 이상 | 72 | 11 | 17 |
| 여자 | 15~20세 | 87 | 9 | 4 |
| | 20~30세 | 81 | 6 | 13 |
| | 30~60세 | 80 | 4 | 16 |

문6) '왜 책을 읽나'에서는 '인격을 함양하고자'가 평균 78.5%로 여기서는 건실한 독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은 '여가를 보내기 위해'가 12.2%, 남자의 경우는 '학술에 도움을 얻고자'가 12%이고, '여가를 보내기 위해서'는 14%이다.

▲ 第7問 선택방법

| 수자% | 권유 | 서평 | 광고 | 기타 |
|---|---|---|---|---|
| 남자 | 27 | 38 | 17 | 18 |
| 여자 | 52.8 | 24.4 | 6.4 | 16.4 |

문7) '어떻게 도서는 선택하나'에서는 '스승 선배 친구들의 권유로'가 39.9%로 제일 많다. 다음은 '광고를 보고'가 31.2%, '신간서평을 보고'가 11.7%, '기타'가 17.2%이다. 남자의 경우는 '광고를 보고'가 38%로 제일 많은 반면 여자는 '권유'가 수위(首位)로 남녀의 도서 선택 방법이 다른 점을 보여준다.

▲ 第8問 도서구입

| 수자% | 서점 | 주문 | 월부 | 노점 |
|---|---|---|---|---|
| 남자 | 70 | 8 | 18 | 4 |
| 여자 | 77.8 | 6.3 | 13 | 2.8 |

문8)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도서를 구입하나'에서는 서점에서의 구입이 73.9%로 압도적이다. 다음은 '월부로'가 3, 4%이다.[37]

마지막으로 문9) '주로 어떤 종류의 책을 읽나'에서는 문학서적이 평균

37) 당시는 외판이 성행하던 시기인데 사실상 서울에서는 서점 거래가 제일 많고, 외판은 지방에서 활발했다.(<輿論調査에 나타난 讀書실태>(1970. 11. 15))

66%로 단연 수위를 차지하며, 다음은 예술, 철학이 각각 8%이다. 그러나 이것을 남녀별로 보면 문학은 남자가 33%, 여자가 59%, 사회과학은 남자가 13%인 데 비해 여자는 3%이다.

▶第9問 읽고 있는 책

| | 수자% | 철학 | 종교 | 예술 | 역사 | 문학 | 사회과학 | 자연과학 |
|---|---|---|---|---|---|---|---|---|
| 남자 | 15~20세 | 10 | 4 | 7 | 19 | 44 | 8 | 8 |
| | 20~30세 | 16 | 7 | 7 | 14 | 38 | 11 | 7 |
| | 30~40세 | 12 | 8 | 8 | 21 | 29 | 15 | 17 |
| | 40세이상 | 10 | 5 | 21 | 11 | 5 | 31 | 17 |
| 여자 | 15~20세 | 8 | 3 | 8 | 11 | 66 | 3 | 1 |
| | 20~30세 | 12 | 8 | 11 | 9 | 54 | 4 | 2 |
| | 30~60세 | 7 | 12 | 7 | 10 | 55 | 4 | 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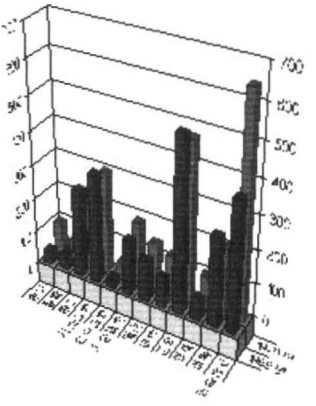
또 주목되는 기사로 70년도에 출판된 서적들의 경향을 보여주는 <不振한 出版企業>(1970년 12월 20일)를 들 수 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당시 등록된 출판사 총수는 약 2천 개, 그러나 부실 출판사 정비 작업의 결과 주소 불명 등으로 등록이 취소될 출판사가 1천 2백 개로 알려져 실제 움직이고 있는 출판사는 7, 8백여 개로 보고 있다. 그나마 '대한출판문화협회'에 의하면 출판 및 인쇄소의 등록법에 의한 납본을 제때에 이행하고 있는 출판사는 4백 5십여 개사뿐이며, 납본 실적은 실지 출판된 책의 약 85%로 추정된다고 보았다.[38]

<표 9>를 보면 당시 1970년(1월부터 11월까지)에 납본된 책은 2천 5백 34종으로 1969년 같은 기간의 2천 2백 87종보다 247종이 더 늘어난 셈이다. 또한 종당(種當) 평균 인쇄 부수는 2천부 선이라고 밝히면서 이는 1만부를 넘는 영미 선진국과 비교도 안될 만큼 적다고 지적한다. 인쇄 부수가 책값을 좌우하는 마당에 싼 값의 출회(出廻)를 위해서라도 독서 인구의 개발은 시급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38) <不振한 出版企業>(1970. 12. 20)

〈표 9〉 70년도 독서 경향(1969년도 대비)

| 분류 \ 년도 | 69 | 70 |
|---|---|---|
| 종류 | 39 | 97 |
| 철학 | 44 | 60 |
| 종교 | 258 | 186 |
| 사회과학 | 323 | 299 |
| 순수과학 | 26 | 39 |
| 기술과학 | 162 | 185 |
| 예술 | 123 | 138 |
| 어학 | 88 | 117 |
| 문학 | 511 | 472 |
| 역사 | 63 | 96 |
| 아동 | 264 | 202 |
| 학습참고 | 386 | 645 |
| 통계 | 2,287 | 2,534 |



종류별 부수에서 특징적인 것은 총 발간 종수에 대한 종별 구성비에서 제1위가 학습참고서류로 전체의 25.4%에 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기사문에 따르면, 1966년에는 학습참고서류가 78.4%로 절대다수를 차지하다가 1967년부터 1969년까지 계속해서 문학류가 최다를 차지했고, 4년 만에 다시 앞질렀다고 밝히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교육과 독서의 관계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하겠다.

<두드러진 외설 경향>(1971년 1월 17일)이라는 글을 보면, 70년도 '한국도서잡지윤리위원회'(韓國圖書雜誌倫理委員會)의 저촉통계(抵觸通計)를 볼 수 있다.

일반도서 26건, 잡지 1백 41건(주간41, 월간100), 아동만화 7천 4백 72건 등 총 7천 4백 72건을 심의했다. 특히 각 주간 및 월간 잡지의 제재 내용을 보면 총 1백 41건 중 약 3분 2에 달하는 59건이 외설(미풍양속 저촉)로 지목되어 잡지의 황색화 경향을 드러내 주고 있다. 같은 날짜 같은 면에는 <사무라이小說 범람 경종>이라는 제목의 1호 활자가 크게 실려 있

다. 이런 류의 책은 백해무익의 악서(惡書)라고 비판하는 글로서 출판업자의 자성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讀書新聞≫은 각 단체의 통계 조사 결과를 보도함으로써 당시의 독서 경향을 쉽게 파악하게 해 주고 있는데, 예를 든 조사들을 보면 주로 상대 평가로 우리의 독서 실태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⑵ 독서 운동과 그 실태

『讀書新聞』의 <讀書저널>면은 도서관 소식이나 독서와 관계된 제반 활동의 소식들을 알려주는 지면으로, 주로 독서계의 활동들을 살펴볼 수 있게 한다.

<표 10>은 독서계의 주요 소식을 정리한 것으로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기관들의 활동을 볼 수 있다.

〈표 10〉 讀書저널의 주요 기사

| 제목 | 발간일 | 내용 |
|---|---|---|
| 國立圖書館에 「讀書相談室」 | 1970년 11월 8일 | 良書 소개, 讀書의 生活化 추진, 史料影印 작업 활발, 飜譯문제 세미나, 아동 圖書 소개 |
| 圖書 10만권 확충계획 | 1970년 11월 8일 | 아세아문제연구소의 도서 현황과 도서 확충 계획 |
| 讀書競進대회 | 1970년 11월 8일 | 21일부터 서울시민회관에서 대통령기 국민독서경진대회 열릴 예정 |
| 學校圖書 구입도 「책바꿈표」 | 1970년 11월 15일 | 出協, 각급 학교의 도서구입비로 대체 활용될 수 있도록 문교부에 건의, 책바꿈표 서울 19개書店서 판매 |
| 古典國讀 기틀마련 | 1970년 11월 22일 | '民族文化推進會'에서 古典國讀의 장기사업계획을 확장, 71년도부터 시작되는 1차 5개년 계획으로 중요 고전 2백선 가운데에 8종 1백 48집을 펴낸다. |
| 建國資料수집에 全力 | 1970년 11월 22일 | 국립도서관에서 해방 이후 건국자료 수집에 노력 |
| 政府 간행문 普及網확장 | 1970년 11월 29일 | 海外旅行者엔 割引制 -정부 간행물 센터서 판매 정부간행물 센터에서 국내 보급망을 대폭 확장하여 각 도청 소재지와 서울 시내 8개 종합 대학에 국내 보급망을 대폭 확장할 계획, 정기간행물 이외에도 평균 5백여 종의 각종 서적을 염가로 공급하고 있다. |

| | | |
|---|---|---|
| 讀書聯盟 競進大會 | 1970년 11월 29일 | 대통령 상에 강진 |
| 圖書輸入정책 是正건의키로 | 1970년 12월 6일 | 低級도서, 入門書 등 많아 |
| 出版金庫에 國庫보조 | 1970년 12월 6일 | 문공위서 출판 보조 1천 3백만원 보조 |
| 不良兒童도서 추방운동 | 1970년 12월 6일 | 불량 아동도서 추방안 '토론의 모임'에서 합의 |
| '韓國圖書館協會'회장 姜周鎭 | 1970년 12월 6일 | 안이한 서적 판매 방법 고쳐야, 도서관이 잘 돼야 학문 발전한다. 시급한 고문헌 정리 |
| 圖書의 개발과 流通 | 1970년 12월 6일 | 유네스코는 도서개발계획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진전 상황을 계획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그 문제점으로 도서공급의 격차를 줄이기, 도서개발 기구의 필요성, 자금조달의 원활, 도서 공급 기구의 확립이 필요 |
| 市民讀書운동본부 발족 | 1970년 12월 13일 | 문화계의 저명인사들의 발기로 '시민독서운동본부'가 부산에서 발족 |
| 70년 出版物 2천 5백종 | 1970년 12월 20일 | 학술 참고서 으뜸 6백 45종, 작년보다 2백 47종 많아 |
| 國民讀書 운동계획 필요 | 1970년 12월 20일 | 마을문고 세미나에서 국민독서운동 건의 |
| 圖書出版輸出入에도 逆調 | 1970년 12월 27일 | 수입 2백만 달러, 수출의 14배나 |
| 國立中央圖書館 南山에 移轉키로 | 1971년 1월 3일 | 7천 평 건물 신축 예정, 종합 학술 센터로 쇄신 |
| 圖書공급기구 一元化움직임 | 1971년 1월 17일 | 도서공급 일원화를 위한 '韓國圖書 供給公社' 추진 |

그 한 예로 <國立圖書館에 「讀書相談室」>(1970년 11년 8일)에서는 국립도서관의 활동을 소개하고 있다. 내용을 보면 국립도서관은 2층에 독서상담실을 마련하여 시민의 많은 이용을 바라고 있다. 1970년 9월 하순에 문을 연 이 상담실은 독서지도 담당관을 두고 '독서의 생활화'와 '도서관 이용의 보편화'를 위해 ① 양서(良書)의 선정 소개, ② 독서방법 지도, ③ 독서서(讀書書)를 육성, ④ 독서실태 조사 등의 일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39]

또한 <아파트 文庫 만든 후론 이웃 싸움 없어졌어요>(1970년 11월 8일)라는 기사는 일종의 '아파트문고'에 관한 기사로서 다시 정부 차원의

39) <國立圖書館에 「讀書相談室」>(1970. 11. 8)

독서운동을 살펴 볼 수 있게 한다.

마을에 '마을 文庫'가 생기더니 반갑게도 이번엔 아파트에 '아파트文庫'가 생긴다. (.....) 소장도서라고 해야 월간 여성 잡지, 문학전집, 수필집 같은 교양서적류와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 위인전 등 모두 해서 2백여 권 정도로 웬만한 사는 집의 개인도서 규모만도 채 못한 文庫지만 이것을 중심으로 응봉아파트의 6백 주부들은 메말라가는 정서와 심지를 추기고, 여가의 무료한 하품을 모르는 채 진정한 生活의 의미를 찾고 있다.

그림 15
≪책바꿈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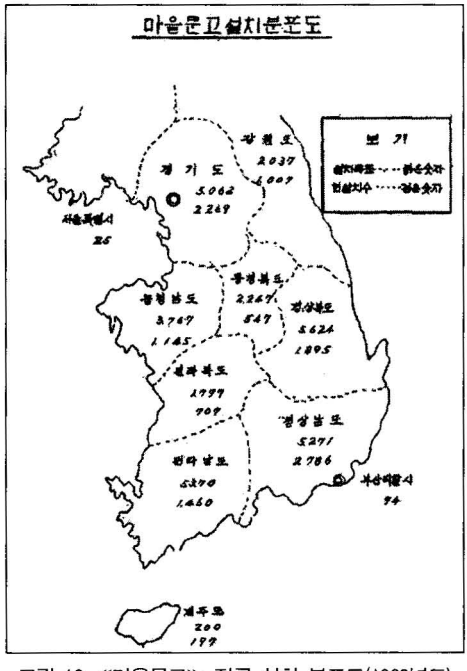



그림 16 ≪마을문고≫ 전국 설치 분포도(1969년도)

이어지는 기사에서도 매일 매일 변화없이 반복되는 기계적인 생활과 가족 중심의 폐쇄된 생활에서 오는 타성과 안일, 권태 등을 극복하고 가난한 가운데서도 윤택한 정신세계를 갖는 생활인이 되기 위해 주부들이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책과 벗한다는 내용을 싣고 있다.

인용문에서도 드러나듯이 '아파트文庫'는 '이름만 바뀐 '마을文庫'로서, 1951년 엄대섭에 의해 시작된 독서운동이다. 주로 농어촌 도서보급

운동으로 전개되어 국민들의 독서 생활을 활성화하는 데 일조했다. 마을문고, 직장문고, 군인문고, 교양문고, 청소년문고, 아파트문고 등의 설치로 전국에 확대되기도 했다. '마을문고'는 1970년대에는 35,000여의 문고가 설치되고, 1975년도에는 새마을 운동의 단위 사업으로 지정되기도 했다.[40]

<곳곳에서 책읽기>(1970년 11월 15일)에서는 "讀書競進大會" 소식을 보도하고 있는데, 시도별 예선에서는 총 1천 8백 56개 팀이 참가하였음을 알리고 있다. 미리 지정된 6종의 도서 중 4종에 대한 독후감을 작성하고, 또 객관식 출제에 의한 심사를 받게 되는데, 출제 및 평가는 김동리 외 5명이며, 대통령기를 비롯, 대통령, 국무총리, 문공부 장관 등의 상패와 메달, 그리고 부상이 주어졌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인 이 대회는 특히 '독서풍토의 개발'을 위한 국가적 관심이 깃들여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41]

<市民讀書운동본부 발족>(1970년 12월 13일)에서도 문화계의 저명인사들의 발기로 '시민독서운동본부'가 부산에서 발족됐다는 소식이 보도되었다. 근대화 과정에서 빚어지는 인간상실, 사회윤리의 타락을 직시하고 참된 독서를 기하자는 데 뜻을 모으고, 우량도서 추천, 독서경진대회 등 적극적인 사업으로 독서의 생활화를 추구했다. 뿐만 아니라 학교별 클럽 조직을 통해 독서지도를 체계화하고자 했던 단체라 평하고 있다.

<國民讀書 운동계획 필요>(1970년 12월 20일)는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도서관 및 마을문고 지도자 세미나가 중앙교육행정연수원에서 열렸다고 전한다. 이 세미나에서는 마을문고와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 3분과에 걸쳐 국민독서운동과 도서관의 역할 문제가 다루어졌는데, 세미나 결과 다음과 같은 건의가 채택되었다.

---

40) '새마을 문고'는 대통령기 전국 독서경진대회, 새마을 독서대학, 도서교환전 등등으로 국민 독서운동을 전개했다.(김효정 외, 『독서교육의 이론과 실제』, 한국도서관협회, 1997, 24쪽)

41) <곳곳에서 책읽기>(1970. 11. 15)

① 공공도서관을 증설할 것 ② 도서구입비의 대폭증액 ③ 전문직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39개의 공공도서관에 시급히 전문직을 배치할 것 ④ 현 정원 이외에 1교에 1명 정도, 그 지역 출신 교원을 선발하여 지역사회개발을 전담토록 할 것 ⑤ 지역사회 개발에 있어 독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농어촌독서운동추진을 위한 전문적 연구기능을 강화할 것.[42]

논단 <膳物로 良書보내기>(1970년 12월 27일)는 문학평론가인 백철(白鐵)의 글로, 독서운동의 중요성과 그 방법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내가 하고 있는 문학운동자체가 국민적인 독서운동과 직접적 인연을 갖고 있다. 왜 그러냐 하면 독자 대중을 예상하지 않고 문학운동의 의미를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요컨대 문학이나 예술이나 학문을 하는 데는 그 배경의 역사적 성질로 봐서 적시와 부적시의 두 개의 환경이 있다고 보아야한다. 첫째는 그 사회현실이 신흥 충만한 분위기 속에서 순조롭게 문학과 학문이 될 수 있는 시기이며, 또 하나는 그런 생생한 분위기를 결한 쇠퇴 빈곤의 환경이다. 둘째 경우는 결국 의식적으로 운동을 일으켜서 신흥적인 사회 분위기를 먼저 조성하는 일이 급선무이며 (...) 그런데 이런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운동으로서 구체적인 방법은 범국민 범사회적인 독서운동을 일으키는 일 이상으로 적당한 것이 없다.[43]

필자는 인용문과 같이 문학이나 예술, 학문이 발달하는 데는 국민의 독서력이 밑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글에서는 우리의 경우, 독서운동은 의식적으로 일으키는 과제이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전개하는 데는 일전한 조직적인 기관, 가령 '국민독서 운동 추진회'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이 단체를 통해 강연, 전시회 등 조직적

42) <國民讀書 운동계획 필요>(1970. 12. 20)
43) <膳物로 良書보내기>(1970. 12. 27)

인 활동으로 계몽 선전의 사업이 앞서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문교, 문공부 등의 정책적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시기상 이 글이 쓰여진 때는 연말인데, 국민 독서 운동의 계기를 마련하는 한 방법으로 '양서 선물 보내기'를 펼치자고 권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사설 <圖書의 개발과 流通>(1970년 12월 6일)이라는 사설에서는 유네스코는 도서개발계획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진전 상황을 계획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음을 알려준다. 우리나라의 독서인구는 외국에 비해 저조한데, 도서공급의 격차를 줄이기, 도서개발 기구의 필요성, 자금 조달의 원활, 도서 공급 기구의 확립의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이 신문에서는 각 지역의 독서회 발족의 소식을 알리는 기사도 흔하게 볼 수 있다. 주로 <讀書저널>면에서 다루고 있는 독서운동의 기사들은 당대 독서 확산을 위한 기관이나 단체의 움직임이 어떠했느냐를 구체적으로 드러내 주어 사적 가치가 크다고 하겠다.

## 3. 맺음말

지금까지 ≪讀書新聞≫을 고찰하였다. 신문의 전체적인 기사를 토대로 하여 첫 번째로 ≪讀書新聞≫의 국어교육적 가치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두 번째로 '무엇을 읽을 것인가'라는 독서 대상의 문제를 고찰했으며, 세 번째로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독서 방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는 기사를 통해 드러난 70년대 초의 독서 현황과 독서 운동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첫째와 관련하여 보면 이 신문은 독서교육 관련 기사들을 통해 읽기교육을 확산시키고 있으며, '한글전용'과 '한자병용'의 문제와 국어 순화론, 쓰기교육(작문법) 등에 대한 다양한 기사로 국어교육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둘째, 읽기 대상의 면에서 볼 때, ≪讀書新聞≫의 읽을거리를 보면 문학, 역사, 철학, 미술, 음악, 연극, 과학 등에 걸쳐 교양을 쌓게 하는 다양한 분야의 글들이 게재되고 있다. 이것은 독자들에게 1차적으로 신문의 읽을거리이기도 하지만, 읽기 대상에 대한 잠재적인 선택을 간접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하겠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무엇을 읽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기도 했다. 그러나 대개의 논의는 읽기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을 지적해 주기보다 일반론을 펼친 경우이다.

셋째, 어떻게 읽을 것인가의 독서방법론은 대표적으로 <讀書指導>란에서 쓰여지고 있는데, 독서 지도 방법론들은 주로 (1) 도서관 이용의 지도 (2) 학급 문고 운영 (3) 독서회의 조직과 운영 (4) 필독 도서 선정 (5) 특별활동을 통한 지도 (6) 속독지도 등이다. 일반적인 독서 지도 방법이지만 그럼에도 독서지도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연속하여 게재함으로써 독서지도를 하고 있음은 의의가 크다. 또한 이 신문이 겨냥한 독자층 중의 하나가 교사들이었음을 감안할 때, 그 교육적 효과는 보다 컸으리라 여겨진다.

넷째, 독서 현황과 독서 운동의 측면에서 보면, ≪讀書新聞≫은 주로 통계를 이용하여 국내의 독서 실태를 보도하고 있다. 각 단체의 통계 조사 결과를 알려줌으로써 당시의 독서 경향을 쉽게 파악하게 해 준다. 주로 「讀書저널」면에서 다루고 있는 독서운동의 기사들은 당대 독서 확산을 위한 기관이나 단체의 움직임이 어떠했는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 주어 사적 가치가 크다고 하겠다.*

[주제어] ≪독서신문≫, 독서 대상, 독서 방법, 독서교육, 독서 활동의 조건

---

* 본 논문은 2005. 5. 30. 투고되었으며, 6. 11. 심사가 시작되어, 6. 17.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 문헌

강혜진(2000), 「읽기 교육의 최근 동향과 국어교육에의 시사」, 『國語敎育學硏究』 제10집, 국어교육학회.
김승환(1979), 『독서교육과 현장지도』, 나라기획.
김용철 외(2002), 『학교도서관과 독서교육』, 태일사.
김효정 외(1997), 『독서교육의 이론과 실제』, 한국도서관협회.
讀書新聞社(1971), ≪讀書新聞≫ 製本版, 讀書新聞社.
마을문고본부(1969), 『마을문고통계연보』, 마을문고본부.
윤금선(2004), 「근현대 국어교육 양상2」, 『국어교육연구』 제13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이만수(2004), 「독서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독서문화연구』 제3호, 대진대학교 독서문화연구소.
이연옥(2002), 『한국 공공도서관 운동사』, 한국도서관협회.
李正春 외(1988), 『讀書와 出版文化』.
眞話堂編輯部 編(1986), 『무엇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眞話堂.
한국독서학회(2003), 『21세기 사회와 독서지도』, 박이정.
漢哲愚(1988), 「독해과정 연구와 독서 교육」, 『한국국어교육학회』 제33집, 한국국어교육연구회 논문집.

■ Abstract

# A Study on ≪讀書新聞≫
## -on the Perspective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Yeun, Keum Sun

This paper is purposed for investigating the newspaper, published in '70 and called ≪讀書新聞≫. First of all, we have discussed the pedagogical value of ≪讀書新聞≫ regarding onto Korean Language Education. After thoroughly examining ≪讀書新聞≫, we could have got contemporary ideas about 'what to read', and 'how to read'. Lastly, we have examined social conditions and atmosphere around 'reading', such as reading practices and movements in '70.

The points from these thorough examination are as follows : Firstly, ≪讀書新聞≫ was a very important and powerful means for spreading the idea 'Hangeul-Only' against the idea 'Chinese Letter-Only' among people in those days. That is to say, it really has pedagogical value in term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Secondly, ≪讀書新聞≫ had various reading materials in it and gave some suggestions about what to read onto readers, then we can get some ideas which kinds of books or reading materials people read and wanted to read at those times. Also, ≪讀書新聞≫ gave some guidelines on the issue about how to read from its column called '讀書指導'. Those guidelines are also educationally meaningful to us. Lastly, ≪讀書新聞≫ gave us various research data such as public survey about reading issue, so that we can get some meaningful information such as reading practices and reading movements and so on at those times.

[Key Word] ≪讀書新聞≫, Korean Language Education, reading education, 'what to read'(reading object), 'how to read'(reading method), reading practices